

STOP! 혐오 표현 SPEECH



강남역, 트럼프, 이주민. 얼핏 보면 아무 연관성 없어 보이는 단어들이다. 그런데 이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혐오’다.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미움’ ‘싫음’ ‘거북함’ 등이다. 여기에 사회적·역사적 맥락이 더해져 혐오는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을 그 정체성을 빌미로 삼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 혐오가 현재 우리 시대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현상을 읽어내는 코드가 되고 있다.

지난달 강남역 부근에서 일어난 살인사건과 그 후 이어진 대규모 추모 행렬에는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만연했던 여혐(여성혐오)의 줄임말이 내재되어 있다. 인종차별적 발언에 썩 호감 가지 않는 인상의 미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유권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 데에는 유색인종에 대한 백인들의 혐오가 한몫하고 있다고 한다. 언제부터인가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자주 마주치는, 이 땅에 온 낯선 외국인들을 원가 불편하고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스스로에게서 순혈주의를 자랑하는 한국인으로서의 뿌리 깊은 타민족 혐오를 실감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싫은 것, 미운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혐오나 혐오감 자체는 규제나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내심을 파고들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밖으로 표출되었을 때 비로소 문제가 된다. 당장 물리적으로 혐오를 표출한다면 범죄에 해당하여 살인이나 상해, 폭행 등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언어적 방식으로 표출된 혐오, 이른바 ‘혐오 표현(hate speech)’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한 마디로 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혐오 표현은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는 혐오 표현이 공연성이라는 요건을 만나 범죄가 되는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이 지난 2009년 7월에 있었다.

당시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인도인 교수 보노짓 후세인은 부천행 시내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국인 승객으로부터 심한 폭언을 듣게 되었다. 30대 초반의 남성 승객은 후세인 씨에게 “시끄러워! 더러운 xx야” “이 개x x야, 냄새나. 너, 어디서 왔어?”라고 쌍욕을 퍼부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모욕죄로 처벌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되었다.

한편, 혐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면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되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판례는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2005다65494)고 판시한 바 있는데, 최근까지 법원에서 모욕으로 인정된 혐오 표현으로는 ‘들보잡’, ‘중북’, ‘주사파’, ‘잡새’ 정도를 들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이 모든 법적 책임이 매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애초에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도록 고안된 ‘모욕’이라는 개념은 다수가 속한 집단을 보호하지 못한다. 그래서 특정인을 향한 것이 아닌, 소수자 집단 전체를 향한 혐오 표현은 모욕적 언사가 될 수 없으며 아무런 법적 책임도 물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은 결코 최근이 아니다. 남북분단이라는 극단적 대치 상황 속에서 이념이 다른 진영 간에 ‘중북’ ‘빨갱이’니 ‘친일’ ‘보수꼴통’이라 명명하며 서로가 서로를 혐오했다. 지역 간에도 혐오하고, 계층 간에도 혐오하다가 이제는 남녀 간에도 혐오한다.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언젠가 한 유명 개그맨이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웃음만 생각하다 보니 발언이 세졌고 자극적인 소재, 격한 단어를 쓰게 됐다.” 그렇다. 하나만 생각하면 쉽다. 그러나 이것저것 고려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사람에 대한 존중과 약자에 대한 배려는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절대적인 고려요소가 아닌가.